

우리에게 성큼 다가서고 있는 쿠바의 문화와 예술

글 · 장지영 국민일보 문화부 기자

정치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쿠바의 문화와 예술이 최근 우리에게 성큼 다가서고 있다. 인터넷 동호회만 1,000여 개에 이를 만큼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살사는 바로 쿠바를 대표하는 춤이자 음악이며 이외에도 재즈, 룸바, 메렝게, 맘보가 댄스 또는 음악 마니아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제 쿠바의 열풍으로 뜨거웠던 우리의 예술계를 살펴보고 한국과 쿠바간 문화교류에 중요한 진전의 요소들을 찾아보자.



쿠바음악의 전설과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쿠바 최고의 거장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북한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아직 우리나라와 수교조차 맺지 않은 쿠바. 미국에 곳곳하게 저항하는 피델 카스트로 정권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의 상징인 체 게바라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물론 스포츠 팬이라면 야구와 배구에 관한한 쿠바가 세계 최강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쿠바는 낯선 나라다. 그러나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풍요로운 예술적 감성을 대표하는 나라로 수많은 예술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동경의 대상이었다.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말년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보내면서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같은 걸작을 썼다.

정치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쿠바의 문화와 예술이 최근 우리에게 성큼 다가서고 있다. 인터넷 동호회만 1,000여 개에 이를 만큼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살사는 바로 쿠바를 대표하는 춤이자 음악이다. 살사 외에도 재즈, 룸바, 메렝게, 맘보가 댄스 또는 음악 마니아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1950년대 중반 한국전쟁 전후의 폐허를 춤바람으로 장식했던 맘보는 미국에서 왔지만 사실 쿠바에 뿌리를 둔 것이다. 대중음악과 춤 외에 요즘엔 클래식과 현대무용, 연극을 통해 한국을 찾는 쿠바 예술인들도 점점 늘고 있다.

쿠바의 열풍으로 뜨거웠던 우리 예술계

우리나라에 쿠바 문화가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된 것은 음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다. 이 음반은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음악을 맡았던 작곡가 겸 프로듀서 라이 쿠더가 1996년 기타리스트 콤파이 세군도, 피아니스트 루벤 곤잘레스, 보컬리스트 이브라힘 페레와 오마라 포르투온도 등 공산주의 혁명전 쿠바의 대표적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한 것이다. 1930~40년대 아바나에서는 미국과 유럽인을 위한 카바레나 클럽이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쿠바 최고의 연주자들이 이곳에 몰려

들었지만 혁명 이후 백인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클럽 역시 문을 닫게 되자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음반이 발매될 당시 이들의 나이가 70~80대였기 때문에 음악계는 라이 쿠더가 감춰진 쿠바 음악을 기적처럼 세상에 내놓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환영받는 사교클럽'이란 뜻의 이 음반은 1997년 빔 벤더스 감독이 이들의 이야기를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담아낸 뒤 전세계적으로 300만 장이 팔리고 그래미상까지 수상하게 된다. 또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열렸던 거장들의 콘서트는 연이은 매진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음악팬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이 음반이 소개된 것은 2000년에 이르러서다. 당시 이 음반은 국내에서 월드뮤직으로는 드물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리고 이듬해 2001년 2월 LG아트센터에서 공연을 가진데 이어 팀의 주축인 루벤 곤잘레스, 오마라 포르투온도, 이브라힘 페레의 독집음반이 나오고 3월에 영화까지 개봉되면서 국내 예술계는 쿠바열풍으로 뜨거웠다.

이즈음부터 국내에는 인터넷을 통해 라틴 음악 및 댄스 동호회가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1999년 리키 마틴,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산타나를 통해 전세계 대중음악 시장을 강타한 라틴팝이 한국에서도 뿌리를 내린 것이다. 특히 살사를 필두로 온갖 리듬의 천국인 쿠바 대중음악이 라틴팝 가운데서 가장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것은 당연했다. 정교한 타악기가 만들어내는 리듬과 그 속에 담긴 관능 그리고 현악기와 피아노가 어우러진 우수어린 선율은 거부할 수 없는 쿠바 음악의 매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춤도 마찬가지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2002년 쿠바 출신의 명 기타리스트 미누엘 바루에코가 내한 연주회를 가졌다. 바루에코는 바흐부터 비틀즈까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음악적 교류를 시도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세 번째 내한공연을 갖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첫 공연



컨템포러리 무용의 최신 흐름을 보여주며 쿠바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나르시소 메디나 무용단'의 공연 장면

왼쪽 페이지
왼쪽 · 클래식과 쿠바 리듬재즈의 환상적인 조우라는 평가를 받으며 큰 인기를 모은 '클라츠 브라더스 & 쿠바 퍼커션'
오른쪽 · 1950년대 아바나의 전설적인 클럽 분위기기를 쇼 뮤지컬 스타일로 만든 <더 바 부에나 비스타> 공연 포스터

이후 같은 해 10월 그리고 올해 한국을 찾은 클라츠 브라더스 & 쿠바 퍼커션은 쿠바 음악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정을 보여준다. 독일인 클래식·재즈 연주자로 구성된 클라츠 브라더스와 쿠바 퍼커셔니스트 그룹인 쿠바 퍼커션은 클래식과 쿠바 리듬재즈의 환상적인 조우라는 평가를 받으며 큰 인기를 모았다. 2004년 한국에서 발매된 이들의 크로스오버 음반 <클래식 미츠 쿠바(Classic meets Cuba)>는 상반기 클래식 차트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2001년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이후 다시 한번 쿠바 음악의 열풍이 한국을 휩쓸고 있다. 지난 봄 라이 쿠더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서 원년 멤버로 활동했던 트럼펫 연주자 마누엘 과지로 미라발이 새 앨범을 낸 것이다. 마누엘 과지로 미라발이 주축이 됐지만 과거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영광을 구현했던 이브라힘 페레를 비롯해 베이시스트 카차이토 로페즈, 기타리스트 겸 오르간 연주자 마누엘 갈반 등 실력과 뮤지션들이 힘을 보탠 것으로 높은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또 10월에는 1950년대 아바나의 전설적인 클럽 분위기를 쇼 뮤지컬 스타일로 만든 <더 바 부에나비스타> 공연이 열렸다. <더 바 부에나비스타>는 호주의 뮤지컬 프로듀서 토비 가프가

이 클럽에서 평생을 바(bar)맨으로 일한 알투도 루카스와 만나 기획한 것이다. 클럽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무대에는 악단을 비롯해 바와 테이블 등이 놓여 있다. 피아니스트 마에스트로 루발카바, 기타리스트 마라카이보, 가수 레이날도 크레아흐와 시오마라 발레스 등 역시 70~80대 쿠바 음악의 산 증인들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댄서들이 음악에 맞춰 현란한 살사춤을 선보였다.

그리고 11월에는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출연해 유명한 '쿠바의 에디트 피아프' 오마라 포르투온도가 한국을 찾는다. 원년 멤버, 특히 콤파이 세군도와 루벤 곤잘레스, 이브라힘 페레르 등 핵심 멤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적어도 보컬리스트로는 오마라 포르투온도만 남았다. 오마라 포르투온도 역시 75세로 이번이 마지막 내한무대가 될 가능성이 큰 탓에 음악팬들 사이에서는 일찍부터 화제가 됐다. 활발한 음악 분야에 비해 쿠바의 연극이나 무용 등 순수 공연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에 쿠바 공연이 처음 선보인 것은 2002년 과친 마당극제다. 당시 쿠바의 일 시에르보 엔칸타도 극단이 연극 <해변의 새들>과 <코끼리 놀이> 등 2편을 선보였는데, 신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연극기법으로 큰 인상을 남겼다.

이어 쿠바의 현대무용이 지난해와 올해 서울 세계무용축제(SIDANCE)에서 잇따라 소개됐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소개된 쿠바의 현대무용단 <단사 콤비나포리아>는 쿠바 국립현대무용단의 무용수와 안무가로 활동한 로사리오 가르테나스가 이끄는 단체. 클래식 발레와 미국 마사 그리에엄 테크닉 그리고 롬바, 맘보, 구아구안코, 차차차 등 쿠바 전통춤을 아우르는 춤을 보여줬다. 그리고 올해 SIDANCE에서 선보인 나르시소 메디나 무용단은 무용극·신체 접촉·미니멀리즘 등 컨템포러리 무용의 최신 흐름을 보여주는 단체로 안무가 나르시소 메디나는 쿠바 현대무용을 대표한다. 그가 이번에 선보인 작품 중 <카니발의 기원>은 쿠바의 대표적 음악 가운데 하나인 '손(Son)'의 거장 아르세니오 로드리게스의 음악을 사용했는데, 원초적 향기가 물씬 묻어났다.

쿠바와 한국의 문화교류

쿠바의 문화예술이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도 쿠바에 알려졌을까? 아직은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미 수교국인 쿠바가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인데다 한국과 미국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한국 문화 자체가 쿠바에 알려질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중계무역을 통

현재 쿠바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자동차, 가전 등 상품의 우수성 때문에 대체로 좋은 편이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쿠바에 자리잡은 한국인 기업가들 또는 남미에 있는 한국 교포들의 주선으로 한국 작품이 쿠바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해서긴 하지만 쿠바에서 한해 팔리는 자동차의 30%를 현대자동차가 차지하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70%를 LG전자가 휩쓰는 등 경제 교역이 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쿠바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자동차, 가전 등 상품의 우수성 때문에 대체로 좋은 편이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쿠바에 자리잡은 한국인 기업가들 또는 남미에 있는 한국 교포들의 주선으로 한국 작품이 쿠바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2003년 쿠바 아바나국제연극제에 초청된 극단 현장의 <다시 온 취발이>는 한국 공연 가운데 처음으로 쿠바에 소개된 것이다. 아바나국제연극제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중남미에서 멕시코의 세르반티노 페스티벌, 콜롬비아의 보고타 페스티벌과 함께 권위 있는 공연예술축제



아바나국제연극제의 현장. 올해로 12회를 맞는 아바나국제연극제는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등 세계 15개국의 39개 팀이 참가했다.

가운데 하나다. 또 같은해 대구에서 필그림 미션콰이어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이재준 씨가 쿠바 국립오페라단 국제음악감독 및 국립예술대학 초빙교수로 위촉돼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1년에 몇차례씩 쿠바를 방문해 오페라와 콘서트를 지휘하는 그는 지난해 국내 젊은 성악가들의 갈라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그는 올해 아바나국제연극제에서 폐막작인 국립오페라단의 <카르멘>을 지휘했으며 내년에는 대전 오페라단과 쿠바국립오페라단의 합작 오페라 <여자는 다 그래>를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쿠바간 문화교류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지난 6월 쿠바 정부 주최로 열린 제4회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대회'에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회장이며 SIDANCE 집행위원장인 이종호 씨가 초대된 것이다. 이 씨는 무용계를 비롯한 쿠바 예술계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의 문화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대회'의 축하행사로 김영희 무트댄스가 한국 무용으로는 최초로 쿠바에서 공연을 가졌는데,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월에는 연출가 양정웅이 이끄는 극단 여행자가 <한여름 밤의 꿈>으로 아바나국제연극제에 참가했다. 필자가 취재한 올해 아바나국제연극제는 12회째로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아르헨티나, 칠레 등 세계 15개국에서 39개 팀이 참가했다.

9월 17~18일 훌리오 A. 메자 극장(Teatro Julio A. Mella)에서 <한여름 밤의 꿈> 공연을 본 관객들은 한국적 연희 양식으로 재해석한 셰익스피어에 환호했다. 1,500석 규모의 1, 2층 객석을 거의 메운 관객들은 에어컨이 안 나와 찜통 같은 더위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으며 공연이 끝난 후엔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실제로 전날 같은 극장에서 공연된 프랑스 연극의 경우 관객의 1/4이 도중에 나가버렸다. 이에 비해 극단 여행자는 관객들이 배우들을 만나기 위해 극장 로비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바람에 뒷문으로 빠져나왔을 정도다. 이번 공연에 대해 축제 조직위 측은 "최근 몇 년 간 아바나국제연극제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둔 작품은 없었던 것 같다"며 "연극제 초반이지만 이번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한국 작품의 쿠바 공연이 눈에 띄게 많은데, 오는 11월에는 홍신자 씨가 이끄는 웃는돌 무용단이 아바나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홍씨는 그의 대표작인 포스트모던 댄스 <순례>를 18~19일 선보이게 된다. 한국에서 쿠바 문화의 유행이 자발적인 팬들에 의한 것인데 비해 최근 쿠바에서 열린 한국 공연은 다소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즉, 쿠바에서 공연된 한국 작품은 모두 양국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외교통상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의 쿠바 진출을 위해 아바나에 한국무역투자공사(KOTRA)를 열었다. 카리브해 최대 시장으로 가능성이 풍부한 이곳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쿠바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함께 문화를 통한 한국 이미지 제고에 신경을 쓰고 있다.

사실 쿠바는 미국의 봉쇄정책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한국팀을 포함해 쿠바에 오는 모든 외국 공연은 정부나 페스티벌의 초청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개 초청자 측에서 경비 일체를 대거나 항공편 또는 체류비용을 대지만 쿠바는 비용을 대는 법이 없다. 물론 한국에서 초청하는 쿠바 팀의 경우 우리 측에서 비용을 모두 낸다. 아바나국제연극제의 집행위원장이자 쿠바 문화부 예술국장인 훌리오 곤잘레스 톨레도는 "미 수교 상태이긴 하지만 한국과 많은 문화교류를 하고 싶다"면서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과 쿠바가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 수교도 맺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자, 쿠바와 한국의 문화교류는 이제부터다. 🌈